

# 광주 상장사 “이자 부담 가중, 남의 일 아니네”

### 15개사 부채비율·차입금 의존도 ‘전국 최고’...코로나에 더 악화 경영지표 열악한 기업 9월 코로나 대출지원 종료에 줄도산 우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광주지역 상장기업들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장사는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과 고환율로 인해 치솟는 수입 원자재 비용과도 싸워야 하는 실정이다.

17일 광주일보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상장기업(코스파·코스닥·코넥스) 15개사의 부채비율은 131.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 상장사들의 부채비율이 131.8%라는 건 기업 자본이 100만원일 때 갚아야 할 빚은 130만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이는 전국 상장사들의 평균 부채비율 70.7%의 1.9배 수준이다.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고이며, 전라·제주권을 포함한 5개 도(道) 중에서도 가장 높다.

7대 도시 가운데 광주에 이어 인천 86.2%, 대구 81.7%, 서울 77.3%, 울산 70.8%, 부산 66.8%, 대전 59.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광주지역 부채비율이 현저히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 상장사들의 부채비율은 2017년 115.5%에서 2018년 106.1%, 2019년 101.1% 등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116.3%, 지난해 131.8%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국 평균 부채비율이 66.9%(2017년)→65.1%(2018년)→67.8%(2019년)→70.7%(2020년)→70.7%(2021년) 등 비교적 완만한 물결을 그렸던 것과 대조된다.

광주 상장법인들의 열악한 경영지표는 차입금 의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이 차지하는

#### ■ 지역별 상장기업 경영지표 비교 (2021년 기준, 단위:개·%)

	기업 수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매출액 영업이익률
전체	2052	70.7	20.6	8.4
광주	15	131.8	29.5	0.7
경상	156	116.6	25.8	0.9
전라·제주	48	90	25.1	1.8
충청	176	88.4	28.4	7.1
인천	78	86.2	27.7	10
대구	47	81.7	20.8	5.3
서울	784	77.3	22.3	7.2
울산	22	70.8	14.3	2.1
부산	67	66.8	19	3
대전	36	59.1	17.2	14
경기	600	50.3	14.6	12.9
강원	23	38.7	14.4	8.8

(자료:이정문 의원·금융감독원)

비중인 차입금 의존도는 광주 29.5%로, 역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 비율은 전국 평균 20.5%를 크게 웃돌고, 차입

금 의존도가 가장 낮은 울산(14.3%)보다 2배 높다.

광주 차입금 의존도 역시 2017년 29.0%, 2018년 25.0%, 2019년 24.2% 등으로 줄다가 2020년 25.7%, 2021년 29.5% 등으로 반등했다.

주식이 증권 시장에 등록될 자격을 갖춘 정도로 경영여건이 그나마 나은 상장사들도 차입금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정부지로서 치솟는 금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상승세 속에서 9월 말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대출 지원조치 종료에 예고됐다. 차입금의 금리 부담을 견뎌 내지 못한 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광주 상장사의 채무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영업활동 성과를 판단하는 잣대로 통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매출액에 대한 영업 이익의 비율)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광주 상장법인 15개사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0.7%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8.4%)의 12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며, 전국 최고 대전(14.0%)보다 13.3%포인트나 낮다.

5년 전인 2017년 광주 상장사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3%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0.8%로 올랐고, 2019년에는 전국 평균(5.2%)보다 높은 5.5%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을 겪으면서 이 비율은 2020년 1.5%, 지난해 0.7%로 폭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재무제표 전문 분석기업 KISVALUE에서 3개년 연속 사업보고서 확인이 가능한 상장사들을 대상(금융업·공기업 제외)으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분석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광주 상장기업 15개사 가운데 2곳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3개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선정한다.

이정문 의원은 “광주 상장기업들의 부채비율 등 경영지표가 현저히 악화하고 있다”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기 힘든 한계기업의 경우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연명할 경우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좀비’ 기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세대출 금리 6% 뚫었다...세입자 ‘패닉’

### 보증금 급증에 갹신청구권도 없어...8월 이후 전세대란 우려 주담대 변동금리>고정금리 역전 현상도...고정금리 선택 늘어날 듯

최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뛰면서 서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섰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랜만에 고정금리를 웃돌면서, ‘변동금리 비중 83%’라는 기형적 대출 구조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는 지난 16일 현재 연 4.010~6.208% 수준이다.

지난달 24일(3.950~5.771%)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 하단이 0.420%포인트, 상단이 0.437%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말(3.390~4.799%)보다는 상·하단이 각 0.620%포인트, 1.481%포인트나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현재 연 4.100~6.218%다. 20일 전(3.690~5.781%)보다 역시 상·하단 모두 0.40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210~6.123%로 하단이 0.540%포인트, 상단이 0.329%포인트씩 떨어졌다.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 등의 영향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보증금이 급증한 상태에서 전세대출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달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수도 있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따라서 ‘올며겨자먹기’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례도 급증할 전망이다.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동향의 또 다른 특징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연 4.100~6.218%) 상단이 고정금리(연 4.210~6.123%)보다 높아진 것이다.

거의 1년여 동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크게 1%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리 상승 추세가 뚜렷한데도 대출자들이 더 안전한 고정금리를 외면하는 이례적 현상이 이어졌다.

그 결과 예금은행의 5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82.6%로 2014년 1월(85.5%) 이후 가장 컸고, 같은 달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기준 변동금리 비중도 77.7%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2개월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영하·앞줄 맨 오른쪽)와 광주·전남 지역신협 조합장들이 지난 14일 광주 양동행복신협에서 ‘화재피해 복구지원 성금’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신협 제공>

## 광주·전남 신협, 양동시장 화재 복구 성금 1억

지난 2월 발생한 광주 양동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광주·전남 74개 조합이 성금을 모아 1억원을 기부했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4일 양동행복신협 본점에서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부를 위해 광주·전남 74개 조합이 4230만원을 모금했으며, 신협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 577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이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화재 손해를 입은 양동행복신협 본점과 인근 시장 상인들의 시설 복구 비용으로

사용된다.

김영하 광주전남본부장은 “광주·전남 조합들이 신협의 협동 정신을 발휘해 성금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협은 서민 금융의 동반자로서 재난·재해 극복뿐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시장에서는 지난 2월6일 새벽 불이 나면서 양동행복신협 본점과 인근 상가 15개 점포가 총 5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내가 ‘SNS 광은스타’ 광주은행, 직원 대상 동영상 공모

광주은행이 오는 9월16일까지 올해 4번째 직원 대상 동영상 공모전 ‘SNS 광은스타’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SNS 광은스타’ 공모전은 지난 2019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4번째를 맞았다.

광주은행 브랜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일반형’ 콘텐츠와 캠페인 노래를 바탕으로 만든 ‘캠페인형’ 콘텐츠 두 부문으로 진행된다. 수상작은 광주은행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다. 수상작에 선정되면 은행장 표창과 상금이 주어진다.

해당 공모전은 수신·여신 등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벗어나 고객과 소통할 통로를 넓힌다는 점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호응을 얻고 있다.

송중욱 은행장은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반영해 기존의 틀에 박힌 정보전달식의 마케팅이 아닌 고객의 감성에 공감하고 트렌드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금융마케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방은행의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해 광주은행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산물로 복달임 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푸드에비뉴에서 ‘초복맞이 바다의힘 특집전’(~21일)에서 판매하는 민물장어 구이, 자숙문어, 전복 등 수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 ■ 로또복권 (제102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9	18	20	22	38	44	1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020,323,500	8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63,922,191	63
3	5개 숫자일치					1,539,411	2,616
4	4개 숫자일치					50,000	134,065
5	3개 숫자일치					5,000	2,224,097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효과 만점

광주정보문화진흥원 지원 10곳 지난해 매출 배 이상 늘어

광주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해 창업기업 31개사를 대상으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을 벌인 결과 10개사는 매출이 전년보다 100% 이상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진흥원이 지난 4월 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프로그램’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를 벌인 결과 20개사가 ‘우수’ 성과를 거뒀다. 창업도약패키지는 3년 이상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 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31개사를 대상으로 매출 증가율, 고용 증가율, 자금유지 실적 등 부문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보통, 실패 등으로 실적을 나눴다.

평가 결과 10개사 매출은 전년보다 100% 이상 증가했고, 6개사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100% 이상 매출 증가로 ‘최우수’ 성공 평가를 받은 기업은 ㈜에니트, ㈜몬스터스튜디오, 주식회사 비알에스글로벌, ㈜위허들링 등이다.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에니트는 광주시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를 탄생시킨 ㈜몬스터스튜디오는 LG유플러스 프로젝트 투자유치의 성과를 거뒀다.

주식회사 비알에스글로벌은 쇼핑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을 내놓았고 ㈜위허들링은 구독서비스로 12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이 업체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30억원, 올해 3월에 90억원 등 총 12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탁율석 원장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이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어 주관기관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응원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